

나주시, 올해부터 혁신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민선 8기 신규 시책 발굴...고용 안정·근로자 정착 도모 5인 이내 1인당 기숙사 임차비용 60%...최대 15만원까지

나주시가 혁신산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숙사 임차 비용 일부를 기업에 지원한다.
나주시는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산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단 내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업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민선 8기 신규 시책으로 발굴됐다.

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관내 아파트·빌라·원룸·오피스텔 등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임차(월세) 비용의 60%(최대 15만원)를 기업에 지원한다.
앞서 국·도비 매칭 유사 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이 2022년 일몰제로 중단됨에 따라 시는 올해 사업비 1억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공장·부분 등록을 완료한 혁신

산단 소재 중소기업으로 기업에서 직접 관내 위치한 주거시설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임차 비용은 기업 한 곳 당 근로자 5인 이내로 1인당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된다.
근로자 조건의 경우 5년 미만(2018년 1월 1일 이후)의 내국인 근무자이면서 전체 신청자 중 20%는 12개월 미만 신규 채용자여야 한다.
즉 근로자 5인의 기숙사 임차 비용을 신청할 경우 신규 채용자 1명 이상포함돼 있어야 한다.
임차비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나주시청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첨부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은 물론 기업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임차비 지원과 더불어 신규채용 보조금, 국·내외 전시

회 참가, 용자금 이차지원 등 앞으로도 산단 입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송준표기자

곡성군, 2023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실시

27일까지 친환경 벼 등 13개 과정 품목별 교육



곡성군이 16일부터 27일까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사무소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3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추진한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새해 영농계획을 수

립해 농가 소득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차별화된 지역특화품목 교육과 공익직불제 등 주요 농업 정책과 미세먼지 저감,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최근 농업 문제점

등을 연계한 교육이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11개 읍면 순회 교육으로 실시된다.
농업인들의 높은 관심도와 교육 수요가 반영된 식량작물(친환경 벼, 옥수수, 콩), 채소(멜론, 토란, 고추), 과수(체리, 블루베리, 매실, 감, 사과, 배), 양봉 4개 분야 13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자체 및 외부 강사를 활용해 재배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역 내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사례발표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관내 농업인의 교육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꼭 필요한 교육들로 편성하겠다. 또한 새롭게 진행되는 농업정책, 각종 군정 홍보를 통해 농업인이 행복한 곡성군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과정별 교육 일정에 맞춰 해당 장소를 방문해 참여할 수 있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농촌지원과에(061-360-8813) 문의하면 된다.
곡성=양해영기자

구례군 자주식 주차타워 완공...본격 운영

주차난 해소 기대

구례군은 자주식 주차타워 건립공사가 마무리되어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례병원 인근에 위치한 주차타워는 사업비 약 29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3단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99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24시간 개방된다.
이곳은 병원, 마트 및 여러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역인 반면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좁은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지역주민, 병원 방문객 등에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례군은 주차타워 건립으로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김순호 군수는 "오랜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한 소음과 불편을 감수해 주신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차환경 개선을 통해 군민 여러분께 더 많은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장성군 산불 진화 헬기 운용...산불 예방 총력

장성군이 18일부터 산불 진화용 임차헬기를 본격 운용한다.
군에 따르면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일대의 산불을 감시하고 진화하는 임차헬기의 거점이자 장성으로 지정됐다. 군은 최근 황룡면 신소리 황룡강 둔지에 헬기계류장 설치를 마쳤다.
10만 2484㎡ 규모의 물을 담을 수 있어 조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산불조심기간인 봄, 가을에 가동된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올해 산불 관련 예산 12억 원을 확보해 무인 감시카메라 교체, 위험요인 제거 등 산불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산불 현장 지휘차량을 확보해



대형 화재 발생에 대비하도록 했으며, 드론 가동을 시작해 효과적인 산불 감시와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산불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화순군, 설맞이 화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1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화순군청 뒤편 주차장



화순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화순군청 뒤편 주차장에서 '설맞이 화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이번 장터는 지역 업체 17곳이 참여해 화순에서 생산·가공한 농특산물인 ▲딸기 ▲방울토마토 ▲불미나리인진숙쥬 ▲흑염소떡갈비 ▲한과 ▲꿀 ▲홍삼원액 ▲식혜 등 70여 가지 품목을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직거래장터를 통해 우수한 화순 농특산물을 알리고 농가의 소득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

